

03 학교 생활 기록부

세특 — 규정이 정한 자리

무엇이 적히고 무엇이 금지인가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먼저 사실부터	2
02 적을 수 없는 것	3
03 비교 칸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모든 학생이 받습니다** —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다른 자리
- ◆ 규정이 막아 둔 것 — 수상·「대회」라는 낱말·준비 과정·소논문·방과후
- ◆ **비교 칸** — 공동교육과정·미이수가 여기 적힙니다
- ◆ 학기마다 볼 네 가지 · 확인하실 여덟 가지

01 · 먼저 사실부터

모든 학생이 받습니다

「세특은 특별한 아이만 적어 주는 것 아닌가요?」 가장 많이 받는 오해입니다. 규정은 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학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학생에 대해서만 입력한다(제7항)**

	중학교	고등학교
누구에게	특기할 만한 과목·학생만	모든 학생이 원칙
분량	과목마다 500자 · 개인별 세특 500자	

그래서 「우리 아이 세특이 있나」가 아니라 「무엇이 적혀 있나」가 물음이 됩니다.

그리고 과목마다 500자입니다. 한 학기에 여덟 과목을 들으면 여덟 칸이 생깁니다. 학생부에서 가장 자리가 많은 칸입니다.

무엇을 적게 되어 있나

규정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제15조 제6항)**

낱말 둘을 보십시오. 「성취수준의 특성」과 「학습활동 참여도」. 성적이 아니라 어떻게 배웠는가를 적는 칸이라는 뜻입니다.

출처: 교육부훈령 제555호 제15조 및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기재요령(고등학교). 기재요령은 해마다 2월에 새로 나오고 초·중·고가 다르다. 그 해 요령을 확인해야 한다.

02 · 적을 수 없는 것

규정이 막아 둔 자리

세특에 못 적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규정이 막아 둔 것입니다.

못 적습니다	규정
수상 사실	수상경력 이외의 어떤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대회」라는 낱말	수상경력을 뺀 다른 항목에 쓸 수 없습니다
대회 준비 과정·참가 사실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소논문	기재 금지
방과후학교 활동 내용	미기재
교외 활동·학원	학교 교육과정 밖은 적히지 않습니다

둘째·셋째 줄이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상은 못 적어도 준비한 것은 적어 주시면 안 되나요」가 안 되는 까닭입니다.

다만 대회와 무관하게 한 탐구라면 적힐 수 있습니다. 같은 공부라도 「대회 때문에」라는 틀이 붙으면 못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못 합니다

사용자(교사)는 학생에 대해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해야 한다(제4조 제2항). 학생이나 학부모가 문안을 만들어 넣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학생이 써서 드리는 것은 규정이 정한 방식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본 것을 적는 칸입니다.

다만 수업에서 한 것을 선생님이 알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릅니다 — 그건 학생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출처: 교육부훈령 제555호 제4조·제9조 및 기재요령 유의사항. 세부 운영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릅니다.

03 · 비교 칸

작은데 크게 읽힐 수 있습니다

세특 옆에 「비교」라는 작은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히는 것을 아는 분이 드뭅니다.

무엇이 적히나	뜻
공동교육과정	우리 학교에 없어 다른 학교에서 들은 과목
온라인학교 · 학교 밖 교육	다른 경로로 이수한 과목
미이수	이수 기준을 못 채운 과목
대체이수 · 재이수	다시 듣거나 대체한 과목

첫째 줄이 실제로는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없는 과목을 찾아 들었다는 기록이니까요.

셋째 줄은 반대입니다. 미이수가 여기 남습니다. 앞의 제도 편(F8)에서 다룬 그 자리입니다.

고교학점제와 이어집니다

고교학점제에서 과목을 골라 듣게 되면서 「무엇을 들었는가」가 학생부에 더 뚜렷이 남습니다.

세특은 그 과목에서 무엇을 했는가이고, 비교는 그 과목을 어떻게 들었는가입니다. 둘이 함께 읽힙니다.

출처: 교육부훈령 제555호 제15조 제5항. 비교 기재는 학교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04 · 그래서 무엇을

학기마다 볼 것

차례	무엇을	언제
1	과목마다 세특이 있는지 쟁니다	학기 끝
2	내용이 과목마다 다른지 봅니다	//
3	아이가 기억하는 일인지 물어봅니다	//
4	비고 칸을 봅니다	//

2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목이 다른데 세특 내용이 비슷하게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업에서 드러난 것이 적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건 아이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어느 과목에서 무엇을 드러낼지를 같이 생각해 보실 자리입니다.

세특에 대해 확인하실 여덟 가지

☐ 고등학교는 모든 학생이 받는다 는 것을 아는가

☐ 과목마다 500자 인 것을 아는가

☐ 들은 과목에 빠짐없이 있는가

☐ 내용이 과목마다 다른가

☐ 아이가 기억하는 일 인가

☐ 수상·대회 가 적힐 수 없다는 것을 아는가

☐ 비고 칸 을 본 적이 있는가

☐ 학생부에 학원·교외 활동 을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

다섯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가 기억 못 하는 내용이 적혀 있으면 그건 면접에서 답이 안 됩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세특을 「선생님께 부탁드릴 것」으로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규정은 「선생님이 본 것을 적는 칸」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부탁으로 바꿀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신 수업에서 보일 수 있는 자리는 학생에게 열려 있습니다 — 질문, 발표, 과제, 실험. 거기서 만들어진 것만 적힙니다.

05 · 자주 묻는 것

세특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세특이 비어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문제인가요?

먼저 학교에 확인해 보십시오. 고등학교는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라 비어 있으면 이유가 있거나 누락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교양 교과처럼 이수 여부만 적는 과목이 있고, 학교 사정으로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락이라면 그 학년이 끝나기 전에 말씀하셔야 합니다. 학년도가 지나면 고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L7에서 다룹니다).

묻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왜 안 적어 주셨나요」가 아니라 「비어 있는데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가 낫습니다. 누락일 수도 있고 규정상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Q. 세특 내용이 짧고 뻘합니다. 불리하나요?

길이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500자를 다 쓴 세특이 짧은 세특보다 낫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보실 것은 구체성입니다. 「성실히 참여함」과 「○○ 단원에서 △△가 왜 그런지 묻고 자료를 찾아 발표함」은 같은 길이라도 읽히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쓰려면 구체적인 일이 있어야 합니다. 글숨씨의 문제가 아니라 수업에서 있었던 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세특이 뻘하다면 「어떻게 적어 달라고 할까」가 아니라 「다음 학기에 무엇을 해 볼까」로 가시는 편이 맞습니다.

그게 규정이 의도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한 줄로 남기면

세특은 고등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받는 칸이고 과목마다 500자입니다. 수상과 대회는 적힐 수 없고, 수업에서 있었던 일만 적습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훈령 제555호와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기재요령(고등학교)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 운영은 학교마다 다릅니다.